

엔화 향방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우리업계의 대책

1999.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 장 조 사 처

목 차

1. 최근의 엔화 동향 및 전망	1
가. 최근의 엔화 동향	1
나. 최근의 엔화 강세 배경	2
다. 향후 엔화 전망	3
2. 엔화 강세의 영향 분석	5
가. 수출에 대한 영향	5
나. 수입에 대한 영향	7
3. 엔고의 현황과 요인	8
가. 엔고의 현황	8
나. 엔고의 요인	8
7. 일본국내의 반응	10
가. 도쿄	10
나. 오사카	11
다. 나고야	14
라. 후쿠오카	15
5. 구미선진국의 반응	17
가. 뉴욕	17
나. 런던	20
다. 파리	22
라. 프랑크푸르트	25
6. 동남아경쟁국의 반응	27
가. 싱가포르	27
나. 베이징	29
7. 우리업체의 대책 및 엔고활용 방안	31
◆ 참고자료 : 한·일 무역 현황	33

1. 최근의 엔화 동향 및 전망

가. 최근의 엔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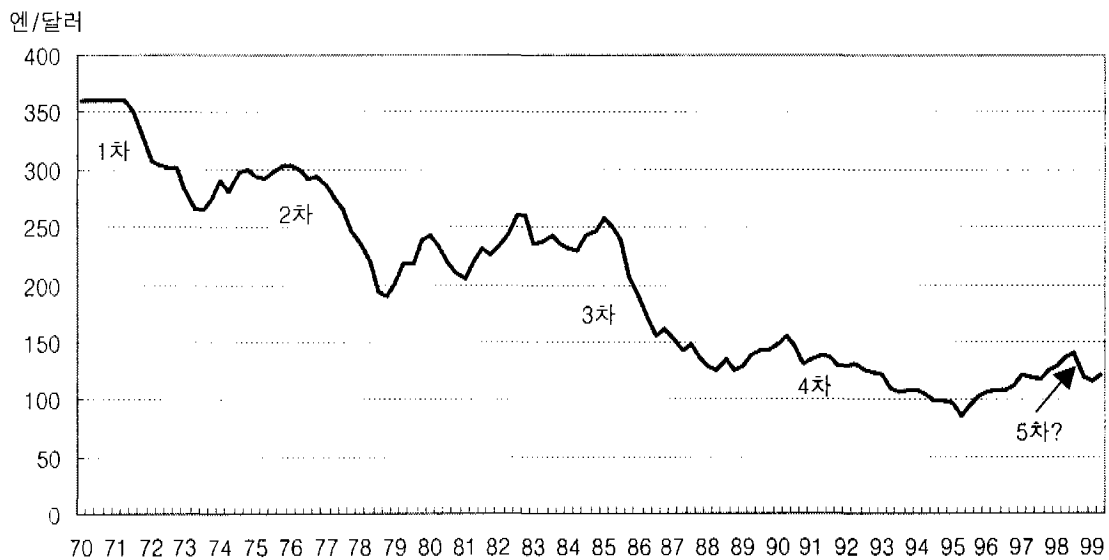
- 지난 7월 엔/달러 환율 120엔이 무너진 이후 최근 100엔대가 위협받는 등 엔화강세 기조 뚜렷

구 분	97평균	98평균	99.3말	99.6말	99.7말	11.2
¥/\$	121.02	130.91	120.55	121.04	115.65	104.38

- 최근의 엔화강세가 제5차 엔고 국면인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

- 4차례의 엔고는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

* 4차례 엔고시기의 평균 수출증가율 : 33.6%(1차 59.5%→4차 18.1%)



나. 최근의 엔화 강세 배경

미국경제의 침체 불안과 일본경제의 회복 기대감 등 미·일간 경제 기초 여건(fundamental)의 역전 가능성에 기인

1) 미국경제 하강에 대한 불안 우려 확산

- 9년째 고성장·저인플레이가 지속되던 미국경제가 최근 경기후퇴 조짐을 보임.

- * 경제성장률(%) : (98) 3.9 → (99.1/4) 4.3 → (99.2/4) 2.3

- * 노동생산성 상승율(%) : (99.1/4) 3.6 → (99.2/4) 1.3

- 미 무역수지적자 폭 확대 : 99.6월 월간 최대 246억불 적자

- * (97) -1,826억불 → (98) -2,334억불 → (99.상) -1,363억불

-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금리인상

- * 6.30일에 이어 8.24일 연방기금금리를 각각 0.25%p 인상

2) 일본 경제의 회복 조짐

- 99.1/4분기 2.0% 성장에 이어 2/4분기에도 0.2% 성장

- * 경제성장률(%) : (97) 1.4 → (98) -2.8 → (99.1/4) 2.0 → (99.2/4) 0.2

- * IMF의 99년 일본경제 전망 상향조정 : (당초) -1.4% → (수정) 0.2%

○ 미국에서 이탈된 국제투자자본의 일본 유입

* 99.1/4분기 일본과 아시아지역에 순유입된 외국자본은 287억불

* 일본증시 활황세(연초대비 20% 상승)

- NIKKEI지수 : (98말)13,842 → (99.6말)17,530 → (7말)17,862 →
(9.10)17,711

다. 향후 엔화 전망

최근의 엔화강세가 돌발적 현상이 아닌, 미·일 경제기초여건 변화가 시장에 반영된 구조적 현상이므로, 최소 금년말까지는 엔화 강세기조가 유지될 전망

◆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엔고가 지속될 것이며, 100엔대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

○ 엔화강세 지속 가능성

- 최근의 엔/달러 환율 흐름은 '시장의 힘'이 미·일 외환당국의 정책의지를 압도하는 상황

* 일본정부의 강력한 엔고저지를 위한 시장개입 (6.10일 이후 7차례)

* 미국정부의 강한달러 유지를 위한 엔고 불허

- 미 금리 재인상(8.24),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및 대일무역역조 심화, 일본경제의 불황탈출 가시화 등 엔저 야기요인이 퇴조하고 엔화강세 유도요인 강화

○ 엔화약세 반전 가능성

-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국제적 불안감 상존
- 엔고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및 기업의 저항, 달러약세-자본유출(capital flight)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감 등

○ 변동요인은 있으나, 미·일경제의 구조적 영향으로 엔화 강세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

2. 엔화 강세의 영향 분석

엔/달러환율이 10%절상될 경우 수출은 약1.9~2.7%, 수입은 약1.0~1.9% 정도 증가하여 무역수지 4~25억불 개선

* 99년 목표 대비 : 수출 25~36억불 증가, 수입 11~21억불 증가

* 국내 연구기관 종합

가. 수출에 대한 영향

○ 국내 연구기관 분석을 종합할 경우 엔화가 10% 절상될 경우 수출은 약 1.9~2.7% 증가

* 99년 수출목표(1,340억불) 대비 : 약 25~36억불 증가

구 분	한국은행	무역협회	삼성(연)	산업은행
엔화 10% 절상시 수출증가율(%)	1.9	2.1	2.7	2.0

- 대우경제연구소는 엔화10% 절상시 수출은 25.3억불 증가 전망

- 반도체 5.0억불, 전기전자 3.2억불, 자동차 3.1억불, 선박 1.8억불

〈품목별 영향〉

○ 대일 경합도가 높고 개도국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등은 수출호조 예상

- 반면, 개도국과 경쟁이 치열하거나 잠식당하고 있는 섬유, 신발, 가정용 전자 등은 엔화강세 효과가 분산되어 수출증대 효과 미미

〈지역별 영향〉

- 대일본 : 일본의 엔화표시 수입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일수출 호조 전망

〈주요품목별의 일본시장 점유율(%)〉

구 분	철강 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화학 제품	섬유류	가죽 모피	종화학 제품	경공업 제품	전품목
98년	12.6	8.4	3.1	4.1	6.1	5.4	5.3	4.1	4.3
99.1~5월	13.7	8.9	5.5	4.2	6.8	5.2	6.1	4.1	4.8

- 제3국시장 : 주요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엔화강세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대

- 다만, 미국경기하강에 따른 우리 수출 둔화 가능성도 있음.

〈아시아국가들의 미국시장 점유율(%)〉

구 분	일 본	중 국	대 만	싱가폴	말 련	태 국	인 니	필리핀	한 국
98년	13.3	7.8	3.6	2.0	2.1	1.5	1.0	1.3	2.6
99.1~5월	13.1	7.3	3.5	1.8	2.0	1.3	0.9	1.1	2.9

나. 수입에 대한 영향

○ 엔화가 10% 절상될 경우 수입은 약 1.0~1.9% 증가

* 99년 수입목표(1,090억불) 대비 : 약 11~21억불 증가

구 분	한국은행	무역협회	삼성(연)	산업은행
엔화 10% 절상시 수입증가율(%)	1.3	1.0	1.9	1.3

* 대우경제연구소는 엔화10% 절상시 수입은 6억불 증가 전망

〈지역별·품목별 영향〉

○ 기계류·부품·소재 등 대일 수입 주종품목은 가격탄력성이 낮고 일본의 존도가 높아 수입선 전환이나 수입대체가 곤란하여 수입액 증가

* 대일 수입 10대품목(98) :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기타기계, 철강판, 유기화학품, 철강제품, 기계부품, 기능부품, 전자부품, 동제품

○ 특히,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의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출용 수입이 증가

* 수출의 수입유발도(98) : 38.1%

* 업종별 수출의 수입유발도 : 전기전자(49.0%), 석유화학(46.7%), 금속제품(45.9%)

3. 엔고의 현황과 요인

가. 엔고의 현황

- 엔화는 지난 7월의 120엔대에서 9월초까지 꾸준히 강세를 보임.
- '99.4~6월 성장률이 발표된 9.9일에는 하루에 2.4엔이 급등하는 등 110엔대를 돌파한 이후 엔강세가 가속화되면서 9.16일에는 103엔 전반까지 급상승함.
- 급속한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시장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는 10월들어 106~108엔대 전후로 등락
- 그러나, 10월말 일본정부의 99년도 경제성장을 상향조정 발표(0.5% → 0.9%)에 따라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음.(11. 2일 현재 104.36)

나. 엔고의 요인

내부적 요인

- 일본의 '99.4~6월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플러스 0.2%로 나타나,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당초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성장률이 1.9%에 달해 4~6월기에는 전분기 대비 약간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음.

- 대부분의 기관투자가 등이 일본의 경제회복 기조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엔매입에 나선 것이 급속한 엔고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금년초까지 국제 금융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일본 은행들의 불량채권 문제가 3월말 공적자금 투입으로 상당부분 완화

외부적 요인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 및 인플레이 우려 제기
 - 99.1~3월이후 일본의 경기가 플러스 국면으로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외국 투자자금이 '円高, 株價高' 라는 이중 이익을 노리고 일본으로 유입
- 아시아 경제가 회복기조
 - 일본의 대아시아 수출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여건 호전

4. 일본국내의 반응

가. 도 교

○ 노무라 종합연구소, 경제조사부장 Mr.Ogiwara

- G7회담에서 서머즈 美재무장관이 엔고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것처럼 '강한 달러가 미국의 國益'이라는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 9.21일 일본은행이 '엔고시정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완화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여, 시장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은 것이 21일 이후 엔고의 배경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일.미의 협조개입에 대한 입장정리 혼선 등으로, 일시적으로 100엔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 엔화환율은 앞으로도 일.미의 경제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일본의 경기가 민수위주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연말 엔환은 110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 大和總合研究所, 경제조사부차장 Mr.Sato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대한 입장이 일반 시장관계자의 예상과는 달리 '추가 완화책은 불가'라는 쪽으로 귀결된 것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 연속 사상 최대규모였다는 발표가 9. 21일 이후 엔강세가 급진전된 배경
-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유지해 나갈 적절한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고 있어, 세계금융은 달러를 매각하고 엔화, 유로, 또는 이머징 마켓으로 몰리고 있음.

- 따라서, 100엔대가 무너지는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며, 일·미의 공동시장개입 여부에 따라 105엔대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상황임.
- 금년말 환율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나, 민간주도에 의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아직은 어렵다는 점에서 115엔 전후로 예상됨.

나. 오사카

〈 유관기관의 반응 〉

○ 矢野經濟研究所, 연구원 Mr. Matano

-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미시적인 국내외 환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최근 엔고는 일본의 실물경제의 개선에 따른 결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음.
- 2/4분기 일본의 GDP가 전년대비 소폭 성장했고, 3/4분기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의 엔고추세는 이러한 일본국내 경기의 개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아직, 실물경제의 지표가 되고 있는 소비, 설비, 부동산 등에서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있음.

○ 日本經濟新聞, 경제기자 友山 宏濟

- 환율 비전문가의 입장에서조차 최근 엔화의 상승폭은 지나치게 가파른 것

으로 보이나, 실제 일본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됨.

- 110엔 전반 수준에서 일본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5엔 전후인 지금도 관망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의외임.
- 개인적으로, 금년도내에 100엔대가 붕괴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며, 110엔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수준으로 평가됨.

〈현지 기업의 반응〉

○ ヒリ康(히리야스)(株), 古壓 住康

- 대한수입품목 : 김치, 돼지고기
-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엔베이스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반복되고 있는 환율변동이 수입물량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고 함.
- 대형 상사의 경우는 달러베이스로 수입하는 예가 많지만, 식품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율 보다는 일본국내 시장환경의 변화라고 함.

○ (株)東洋商會(토요쇼우카이), 小川 和雄

- 대한수입품목 : 자동차 부품
- 한국으로 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중남미에 재수출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환율의 변동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고 함.
- 현재로서는 엔고추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으며, 환율이 안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함.

- 120~125엔 정도가 적정 환율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는 100~105정도 전망하고 있다고 함.

○ 三ツ星貿易(미토시보우에키)(株), 大西 征俊

- 최근 대한수입실적은 없으나, 다각도로 대한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최근 약 2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엔고는 수입자로서는 유리한 환경이지만, 아직 일본국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입물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함.
- 금년 연말경에는 103엔대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급격한 환율변동 보다는 안정을 희망함.

○ 大和物産(야마토부산)(株), 加藤 隆史

- 이론적으로는 엔고가 수입확대로 연결되어야 하나, 동사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물량은 감소했다고 함.
- 한편, 동사의 경우 수입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큰 편으로, 110엔 이상의 엔고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는 고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함.
- 아울러, 동사에서는 120엔대가 바람직한 환율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말경에는 동 수준으로 회복되길 희망할 뿐이라고 함.

○ (株)ヒロクラ(히로쿠라), 足立 勝彦

- 최근들어 수입물량은 약간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은 변화가 없음.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은 엔화가치가 상승한 이유보다는 시장 환경이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수출의 경우, 특히 기계류는 엔고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환율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단, 지금부터 상담에 들어가는 물건은 환율의 영향을 다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크게 걱정하는 수준은 아님. 기계류의 경우 상대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환율의 변동이 수출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함.
-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입장에서 환율은 115엔대 정도에서 안정되길 희망하며, 금년중에는 105엔 정도의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다. 나고야

○ 신일본제철

- 수출에 대한 환차손은 발생하고 있으나, 바이어와의 협상에 의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엔고가 어느정도 지속될지 알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115엔 정도이고, '99년 연말 까지 110전후로 예상함.

○ 토요타 통상

-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회사전체적인 특별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 상황을 주시할 예정임.
- 단기적인 엔고는 예상하기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110~120엔 예상되며, 100엔 이상의 엔고시에는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동해 종합연구소

-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중인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과거 달러당 80엔대의 엔고를 경험한 일본기업으로서는 달러당 100엔대에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동 연구소는 '99년도 평균 환율을 110엔대로 전망, 하반기 평균환율을 달러당 103엔 대로 예상하고 있음.
- 2000년3월에는 100엔대 이하로 절상될 전망이고, '2000년도의 평균환율을 100엔대로 예상함.
- 미국 경기에대한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채권, 엔 등의 구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함.

라. 후쿠오카

○ 간가와쇼지(주) , MR.NAKASHIMA 사장

- 엔고에 의해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좋은 점은 있으나 동사의 고객인 세철소 등 메이커들은 엔고에 의한 수출이익 감소로 인해 새롭게 코스트다운을 부득히 하지 않을 수 가 없었음.
- 이 영향이 당사에 파급됨으로써 결국에는 최근의 엔고로 인한 메리트는 없음.

○ 다카기(주), MR. YAMAGATA 개발부기술관리과장

- 현재 엔화베이스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가격 변동은 없으나 최근의 엔고에 의해 한국메이커에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당사의 이러한 요구에 한국업체가 대응을 해주면 내년도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나갈 예정임.

○ 선로망(주), MR. NISHIMURA 사장

- 엔고로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상당히 메리트가 있음. 엔고와는 상관이 없으나 당사의 경우 L/C거래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관세도 정확히 지불하고 있으나 타사의 경우 보따리장사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있고 관련 세금을 적게 지불하고 있어 불공평한 점이 많음.

○ 도리야스(주), MR. FURUSHO 사장

- 엔화베이스로 수입을 하고 있어 이번의 엔고에 의한 영향은 없음. 그러나 달러베이스로 수입하고 있는 동종업체들이 일본국내에서 엔고분 만큼 저렴하게 판매하지 않을까가 우려되고 있음.

○ L.S.D.L(주), MR. OTSUKA 사장

- 엔고로 인해 수입코스트가 하락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현재 환율을 유지할 수 있으면 향후 수입량을 증가시켜 나갈 예정임.

5. 구미선진국의 반응

가. 뉴 욕

〈한국수출업체〉

○ 자동차(L차장/H자동차)

- 금년도 원화환율을 1,150원대까지 예상하였으며, 엔화환율은 120~130엔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도 대미 수출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최근 미국내 차량판매가 급증하는 것은 환율의 도움 보다는 동사의 이미지 개선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내 판매목표를 당초 115,000대에서 135,000대로 17%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170,000대로 상향조정할 계획임.(지난해 판매대수는 98,000대임)
- 엔화 환율하락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가격인상 움직임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동사에서도 아직까지 이를 활용한 마케팅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음.

○ 반도체(K과장/H전자)

- 반도체 수출은 환율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지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엔화가치 상승이 수출증대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음.
- 더구나, 반도체 장비(원자재)의 50% 내외를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지나친 엔화가치 상승은 국내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철강(S과장/P제철)

- 전자·전기산업과 달리 철강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엔화환율 하락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미수출확대효과는 거의 없음.
- 또한, 지난해 철강가격 하락과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으로 일본의 대미 철강수출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기도 함.

○ 공작기계(C과장/K기공)

- 지난해 밀어내기식 수출물량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상반기중 재고의 원만한 처리로 다시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엔화 환율상승으로 동사에서는 가격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으나, 일본기업이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제한적인 인상에 그치고 있음.
- 동 품목은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단가가 낮은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

○ 건설중장비(K과장/H중공업)

- 금년도 원화의 달러대비 환율을 1150원 내외로 예상하고, 금년도 수출 목표를 설정하였음.
- 원화대비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는 동사의 마케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회사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동사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바이어와 상담시, 일본엔화의 강세로 인해 한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 측면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임.

- 아직까지 일본 경쟁업체의 가격인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음.

〈경제연구기관〉

○ 메릴린치 경제예측자료(Global Research Highlight, 99.9.17)

- 달러대비 하반기 환율전망 : 110엔 이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최대 111~112엔 이하로 평가절하될 것으로는 보지 않음.
- 최근의 엔강세는 일본경제의 회복과 미국경제의 둔화전망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 유지와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엔화 강세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국제자본의 일본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Saloman Smith Barney(Global Perspective, 99.9.3)

- 최근의 엔화강세로 인해 일본기업(특히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무역업, 철강업 등)들의 영업이익은 40%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금년 10월~2000년 3월까지 일본기업들의 엔화환율 전망치는 116엔이었음.

〈무역관 의견〉

- Salomon Smith Barney사가 밝힌 것처럼 금년 하반기 일본기업의 환율전망치는 116엔대 였으나, 현재의 수준은 105엔 내외로 약 10%가까이 평가절상된 수준임.

- 이로 인해 일본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환율 하락에 따른 완제품 가격인상과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음.
- 국내기업은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분석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이것은 원화환율도 연초대비 상당폭 절하됨으로써 달러표시 판매단가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국내기업의 엔고를 활용한 마케팅 및 대미 수출확대는 일본수출상품의 달러표시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연말이후가 되어야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나. 런 던

- Boots PLC, Mr. Grham Kibby 구매과장
 - 일본으로부터 구매량이 많아 엔화의 변화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기체결된 계약에 의거 구매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엔고가 지속될 경우 일본으로 부터의 거래량 등 구매정책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임.
- Morgan Stanley, Mr. Mark Wallace 금융시장분석가
 - 일부 G7 국가는 일본이 엔화강세 저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일본은 엔화강세를 저지할 의사가 없어 보임.
 - 일본 중앙은행의 관리들은 최근에 통화공급을 늘리지 않는 쪽을 선택한 바 있어 G7국가를 당황케 함.

- 개인적인 견해로 이같은 엔고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멀지않아 달러당 100엔대 진입도 예상됨.

○ Time Group Ltd. , Mr. Duncan McAuley 구매담당자

- 주로 대만, 미국, 한국으로부터 PC를 구입하고 있어 엔고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음.
- 엔고로 일부 PC부품 구입시 약간의 가격상승 요인은 발생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어서 중단기적으로 대일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선 전환 계획은 없음.

○ Magnatec Ltd., Mr. Tony Irwin 반도체 판매

- 엔화가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리 만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님.
- 현재 일본산 반도체를 일본의 유럽지역 Distribution Center로부터 마르크나 파운드화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으나, 거래선으로부터 가격인상 요청을 받지 않고 있음.
- 아마도 일본업체가 엔고 효과를 자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arphone Warehouse, Jenny Walton 휴대전화기 수입

- 휴대전화기의 구매는 가격보다는 패션감과 품질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엔고에 따라 일본산 제품이 다소 상승된다 하여도 구매정책을 바꿀의사는 없음.

다. 파 리

○ Natexis 은행, Mr. Francois Chevallier 경제연구소 부소장

※ 동인은 프랑스 최고의 환율전망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엔화 가치가 일본 대외교역에 미친 함수관계를 살펴볼 때, 1달러당 110엔선은 대외교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break-even point라고 강조하였음.

- 그러나 엔고로 인한 일본의 수출액 감소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함.

- 엔고가 일본의 대외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근 일본 증시에서 주요 수출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음.

- 현재의 일본경제는 정부지출 확대와 수출에 의해 성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고, 엔고하에서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수요 확대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110엔 이상의 엔고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OFCE(L'observatoire Francais des Conjonctures Economiques)

* 프랑스 경제전망 관측소

* Mr. Olivier Passet (OFCE의 경제학자)

- OFCE는 가장 최근인 4월에 이루어진 환율전망을 통해 '99년 하반기에는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99년 상반기(117~122엔)보다 더 낮은 125엔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그러나, OFCE의 환율전망은 미국과 일본경제의 기초경제, 즉 경제성장을 격차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며, 기초경제에 대한 예측은 실제 상황과 거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엔화환율은 정상적인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힘.
- 믿을 만한 엔화 환율 예측모델이 없는 가운데, Mr. Passet씨는 최근의 엔고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 전제를 제시함.
 - ① 첫째, '98년도 10월 미국 헤지펀드나 연금기금들이 갑작스럽게 Yen Carry Trade를 끝낸 것이 엔화가치 하락 메카니즘의 종식을 가져왔음.
 - ② OFCE를 비롯한 많은 경제연구소들의 엔화환율 전망 오류로, 당연히 中期 엔화 평균환율에 대한 전망도(1달러당 130엔) 오류가 있었음.
- '95년 가을 이전까지(가을부터는 엔화 가치하락이 진행된 바 있음) 구매력 가치로 따진 엔화의 균형환율은 1달러당 100/110엔선에 달했으며, 이 당시의 실제 엔화가치는 1달러에 80엔까지 치솟았음을 상기시켜야 함.
- 즉 '95년의 상황을 참작하여 현 엔화가치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작년도 Yen Carry Trade의 종식과 최근 엔화의 평가절상은 환율이 일본경제의 회복을 반영해 장기적인 균형환율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두가지 전제를 근거로 Mr. Passet는 금년말 까지 달러대비 엔화 환율이 105엔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 프랑스 저축예금 공탁금고 (CDC)의 엔화 환율 전망
 - * Mr. Yann Tampreanu (CDC의 환율전망전문가)

- 프랑스 저축예금 공탁금고는 지난 8월말 환율전망을 통해, 1/4분기 거시경제 지표의 호전에 힘입은 외국자본의 일본 증시 유입으로 금년말쯤 엔화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 향후 2~3개월의 엔화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일본 증시로의 외국자본 유입과 일본 국채에 대한 일본투자자들의 자금유입으로 1달러당 100엔 선으로 질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와 같은 전망은 G7이 엔고저지를 위한 공동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미국의 외환보유고가 실질적으로 25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근거의 주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CDC는 이와 같은 엔고가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향후 1년간 일본의 거시경제가 정체를 보일 것이며, 2000년 4/4분기에 가야 일본경제가 균형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엔고가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D자동차 / K부장

- '98년도에는 일본산 자동차 중 일본에서 제작된 일부 모델의 경우(닛산의 PRIMERA, 토요타의 아브니스 등), 낮은 이자율과 엔저의 효과에 힘입어 공격적인 판촉전을 통해 프랑스 시장 공략을 강화해 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우리의 주종 수출모델인 소형차의 경우, 일본의 경쟁제품들 대부분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현지에서 생산,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등락이 아국산 자동차의 대 프랑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엔저의 효과가 있더라도 당장보다는 3~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시장상황을 전망함.

라. 프랑크푸르트

○ Deutsches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DIW)

* Contact Person : Mr. Dr. Zwirner

- 엔고로 인해 독일은 일본과 경합중인 산업, 예를 들어 Mechanical Engineering등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 독일산은 일본산과 비교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약점이 있었으나 엔고로 독일산이 가격경쟁력면에서 많이 유리해졌음.

○ Institut fuer Weltwirtschaft an der Universitaet Kiel

*Contact Person : Mr. Dr. Scheide

- 엔화 환율에 대해 계량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으나 현재와 같은 엔고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본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개입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엔고는 회복기에 있는 일본경제를 위해서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이나 독일의 산업, 특히 투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위해서는 유리한 상황임.
- 전자산업분야에 있어 일본은 독일에 비해 매우 경쟁력이 있으므로 엔고가 독일산업에는 다행스런 상황임.

○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Hamburg

* Contact Person : Dr. Restat

- 엔고의 원인중 하나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미달러의 약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엔화 환율 추이는 예측할 수 없음.

○ Dresdner Bank

* Contact Person : Dr. Thomas Hofmann

- 동연구소에서는 환율은 일정시점의 특정국가 경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하고 있으며
- 4/4분기 일본경제는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달 중 대미 달러 환율은 112엔 대로 어느정도 엔고에서 벗어나다가 2000년 말에는 105대 선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일본과 경합하는 기계, 전자 산업 부문에서 독일은 엔고의 혜택을 보고 있음.

○ TEC Electronic GmbH

* Contact Person : Mr. Dr. Borrusch (Managing Director)

- 엔고가 진행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동사는 아직까지 엔고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한 상태임.
- 무엇보다도 일본의 전자산업은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엔고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자산업이 그리 혜택을 볼 것으로는 생각지 않음.

○ Emden Schiffsausruestungs GmbH

* Contact Person : Mr. Dose

- 엔고가 진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 현재로서는 독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향후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6. 동남아경쟁국의 반응

가. 싱가포르

〈주재국 업계의 반응 및 움직임〉

- 현지 업계 및 전문가들은 엔고가 싱가포르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수입수요 확대로 대일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 일본기업들이 생산거점을 저비용 국가로 이전하게 되어 싱가포르 및 아시아 각국으로 직접투자가 촉진된다는 점
 - 일본은행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일본측의 자금회수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유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
 - 90년대 전반 엔고시대에 싱가포르경제가 활황을 보였다는 경험적 사실
- 반면, 엔고로 인해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음. 즉, 일본에서 자본재를 많이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입가격 및 생산비용이 상승하나 이를 수출가격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임.
- 수익성 저하가 현실화되면, 싱가포르내 성숙산업(mature industries)의 경우, 저비용 국가로의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고부가가치·하이테크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한층 힘을 받아 추진될 것임. 중점을 두는 분야는 고부가 디지털 제품으로서 신형디지털 TV,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home entertainment devices) 등을 포함함.
- 대일본 수입물량이 많은 업체들은 수입선을 일본에서 유럽, 미국, 한국, 대만 등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주요기관의 엔고에 대한 전망〉

- 99년 7월 이후 엔화는 미달러화에 대해 15% 정도 절상되었음. 엔화 강세는 일본경제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호임.
- 엔화 강세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제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한편, 엔고는 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자국 통화가치를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정책적 재량권을 주게 됨.
- 일본측은 엔화가치 안정을 위한 공동개입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측이 요구한 통화 확대를 보류, 엔고 저지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조 가능성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엔고 관련 미-일간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 엔고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수주내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100엔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

나. 베이징

〈현지 수입상 반응〉

- 총 6개사의 수입상을 대상으로 전화로 탐문한 결과, 한국산은 일본산에 비해 가격우위에 있음은 인정하지만, 제품수입시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 인도조건 등 여러 제반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 따라서, 최근의 엔고현상과 관련한 거래선 전환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며, 2개월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엔화강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주요기관의 엔고에 대한 전망〉

- 중국 인민은행 금융연구소, JETRO 북경사무소 등을 접촉했으나 최근 엔화 강세와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일체의 자료제공 및 언급을 피했으며, 각 경제연구소, 기업, 정부기관 등의 반응 및 대책에 대한 자료도 24일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음.
- 단지 금융시보, 증권시보, 국제상보 등 현지 경제지에서 엔화강세에 대한 전망 및 파급효과에 대해
 - 일본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일본 주식시장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 미국의 개입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당분간 엔화강세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일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엔화강세는

- ▶ 일본의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와 일본기업들의 이윤수준을 낮추어 일본경제의 회복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 ▶ 이는 아시아각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 ▶ 엔화채무국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라 일본은행의 불량채권이 증가, 일본은행의 국외 대출이 감소, 결과적으로 경제 회복기에 접어든 기타 아시아국가의 경제에 대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음.

7. 우리업계의 대책 및 엔고활용 방안

- 현수준의 엔고는 짧게는 금년말까지, 길게는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경쟁이 되고 있는 한국상품의 경쟁력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리업계는 이러한 호기를 단지 가격경쟁력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품질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엔고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각종 기계류 및 부품류의 기술개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일본은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엔고를 겪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엔고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적응력 향상으로, 엔고로 인한 반사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내 업계 및 연구소들의 대체적인 견해임.
- 따라서 엔화 환율 변동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의 경합정도가 민감한 기계류, 수산물, 전자전기, 자동차 제품을 위주로 단기적인 엔고의 이익을 누리기 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등 엔화 환율 급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엔고현상의 지속에 따라 한국제품의 수출이 호기를 잡은 바, 제품 수준에 비해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상기 제품들을 중심으로 ①광고 등 판촉활동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②품질개선 노력 ③A/S를 비롯한 사후관리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수출확대노력이 요망됨.
- 일본과 경합도가 높고 동남아산과 대체성이 적은 전기·전자제품 특히 대형 고급 가전(TV, 음향기기 등), 휴대폰, 브라운관, 반도체, 승용차 및 부품, 특장차, 항공기부품, 의료기기 등의 품목에 대한 수출확대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한·일무역현황

〈대일 무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증가율
1993	11,564	- 0.3	20,016	2.9	▲8,451	7.6
1994	13,523	16.9	25,390	26.9	▲11,867	40.4
1995	17,049	26.1	32,606	28.4	▲15,557	31.1
1996	15,767	▲7.5	31,449	▲3.5	▲15,682	0.3
1997	14,771	▲6.3	27,907	▲11.3	▲13,136	▲16.2
1998	12,238	▲17.1	16,840	▲39.7	▲4,603	▲65.0

〈일본의 무역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증가율
1993	3,609	6.3	2,407	3.3	1,202	12.3
1994	3,956	9.6	2,747	14.2	1,209	0.5
1995	4,429	12.0	3,361	22.3	1,068	▲11.6
1996	4,112	▲7.2	3,492	3.9	620	▲42.0
1997	4,212	2.5	3,382	▲3.1	830	33.9
1998	3,882	▲7.7	2,807	▲17.1	1,075	31.0

* 자료원 : 일본무역통계 (대장성)